

##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주요 내용 5.11~5.25



### 제2차 본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조례안 등 상정·의결

강릉시의회는 지난 5월 25일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선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별로 심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의결하였다. 이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김진용 의원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의 필요성’과 이용래 의원의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 마을 이주대책 수립

필요성’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기영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고, “4·11 경포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비롯한 소방대원, 국군장병,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을 위한 배식 봉사로 아픔을 함께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이재민들께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한 빈틈없는 복구 지원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



- 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의 총규모는 1조 7,09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98억 9,000만 원 대비 17.06% 증가, 2,491억 1,500만 원이 증액
- 일반회계는 세입분야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4,800만 원 삭감 및 세출분야 3개 부서, 4개 사업에 1억 8,559만 8,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조 2,913억 3,200만 원 대비 17.5% 증가한 1조 5,173억 7,100만 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원안가결하여 기정예산 1,685억 5,800만 원 대비 13.7% 증가한 1,916억 3,500만 원으로 편성
- 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3억 1,300만 원 감액되어 733억 3,600만 원, 새롭게 조성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20억 1,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5,600만 원으로 편성 및 원안가결

### ■ 결의안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홍정완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고,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처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 ■ 10분 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 노후화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의 필요성

이번 산불을 비롯한 연례반복적인 강릉의 재난재해 시 복구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인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봉사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준공 이후 45년이나 지난 건물은 매우 협소하고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해치고 있으며, 법차와 세탁 차량 등 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긴급상황에서 충분한 봉사 공급이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기반 강화 및 자원봉사 참여 촉진, 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용래 의원

###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마을 이주대책 수립의 필요성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의 발전 용량은 원전 2기에 맞먹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 대부분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는 참지 못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위해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발전사업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을 주민, 발전사업자, 강릉시, 강릉시의회, 전문가가 모여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 마을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조속히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 제30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6월 5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및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함께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심의 등이 치러질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윤희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들께서는 꼼꼼히 따지고 폭넓게 살펴서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주요 내용 6.12~7.3

## 제1차 본회의 및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개 안건 의결



강릉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신보금 의원의 “강릉시만의 효율적인 지진 대피체계 구축 필요성”의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 “세계합창대회 등 성공 개최 위해 만전 기해야”

김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년여 만에 강릉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강릉 산불 이후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김홍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모두가 기다려왔던 강원특별자치 시대 개막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혼신을 기울여준 김홍규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므로 유연한 사고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치도 출범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천년의 축제인 강릉단오제를 비롯하여 세계합창대회 등 주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대책 마련 및 관계기관 협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꼼꼼히 확인 및 점검하고, 결산에 대한 날카로운 재정 감독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독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결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으며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강릉 발전을 위해 모두의 열정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다가올 장마철에 재해 위험지구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 ■ 10분 자유발언



신보금 의원

### 강릉시만의 효율적인 지진 대피체계 구축 필요성

최근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이후 지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진해일 발생 시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지진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이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신속하게 예산 확보 후 설치해야 하며 대피지구를 최신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진 성능의 확보를 위해 대피소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대피지구 선정에 있어서 최신 현황을 반영해야 하며, 강릉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공공 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재난 대비는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강릉시만의 효율적인 지진 대피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상임위원회 활동 (제309회 제1차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처리현황 (1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 행정위원회

안건처리현황 (14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원안가결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일괄개정 조례안 등 9건 원안가결
-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옥계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산업위원회

안건처리현황 (10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원안가결
-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 찬성의견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 의정활동 이모저모



### 사진 차례대로

경포 산불피해주택 임시주거시설 전달식(5.26), 울곡대기 리틀 K리그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식(5.27), 2023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5.30 사진 2장), 제58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식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6.3) 현충일 추념식(6.6), 강릉시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6.11), 강릉 국제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6.13)